

초등학교 고학년의 공감 증진에 초점을 둔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에 관한 연구*

조상인** · 배희분*** (상명대학교)

국문요약

본 연구는 공감 증진에 초점을 둔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공감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는지를 밝히는 데 목적을 두었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모형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문헌고찰과 함께 기존에 개발 및 시행되고 있는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에서 공통요소들을 도출하여 최종적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개발된 프로그램을 초등학교 5학년 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효과성 검증을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각각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여 분석했다. 그 결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프로그램 이전에 비해 인지적, 정서적, 의사소통적 공감이 모두 향상되었으나 통제집단은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공감 증진에 초점을 둔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고학년의 공감 증진에 도움이 되며, 자칫 동정심을 유발하거나 물질적 원조에만 초점이 맞춰질 수 있는 기존 세계시민교육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또한 세계시민교육에 상담적 요소를 결합함으로써 상담 영역과의 시너지 효과를 시사했다. 앞으로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인식변화로 인해 상담 영역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행 인력이 더 다양화되어야 할 것이며 프로그램의 효과를 장기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주제어] 공감, 세계시민의식,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I. 서론

현대사회는 인간과 정보, 자원이 국경의 제한 없이 활발히 교류되면서 국가 간의 거리는 더욱 가까워지고 상호 연결성과 의존성이 동시에 강화되고 있다. 이제 우리는 한 나라의 경제정책이 더 이상 그 나라 국민들만의 일이 아니며, 한 국가의 이민자에 대한 가치관이 전 세계의 난민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시대를 함께 살고 있다. 이에 각 사회와 문화 구성원들은 급속도로 진행되는 세계화(globalization) 추세와 이에 따라 생겨나는 여러 현상에 관심을 가져야 함은 물론 과거에 겪어 보지 못한 커다란 변화에 대처하고 잘 적응하여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계화의 큰 흐름 속에서 야기되는 많은 문제들에 대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준비 자세로서 ‘세계시민의식’이 대두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아동과 청소년이

* 본 연구는 조상인(2018년 8월)의 석사학위논문 일부를 발췌 및 수정한 것임.

** 제1저자, 월드비전 세계시민교육 강사, angbei@hanmail.net

*** 교신저자, 상명대학교 아동청소년상담학과 교수, heeboon@smu.ac.kr

지녀야 할 필수 역량으로 강조되고 있다(배영주, 2013; 신인순, 김순옥, 2012; 이태주, 김다원, 2012; 임성택, 2003; Apple, Kenway, & Singh, 2005). 세계시민의식이란 평화와 인권을 추구하고, 지구공동체를 위한 시민적 자질과 정체성, 행위까지 포괄하는 매우 광범위한 개념이다(Noddings, 2005). Hett(1993)는 세계시민의식을 가진다는 것은 세계시민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연결된 세계관을 가지는 것, 나와 다른 세계의 다름을 인식하고 인정하며 전체로서의 세계에 대해 관심과 태도를 가지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수 천 년 동안 단일문화를 유지해 왔고 이에 대한 자긍심이 매우 강했던 우리나라도 1990년대부터 외국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들의 지속적인 국내 유입으로 이제는 단일문화사회에서 다문화사회로 점차 바뀌어져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 청소년기부터 다양한 문화와의 접촉을 늘려가면서 타문화의 사람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습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정해숙 외, 2013).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도 영향을 주었다.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그 시대를 이끌어 갈 교육의 내용은 많이 변화하고 있다. 2009년부터 세계시민적 자세 함양이 교육과정 내에서 교육 목표로 자리 잡기 시작했고(서울시교육청, 2016), 학생들에게 세계화 시대에 요구되는 태도와 자세를 향상시킬 교육이 필요했다. 즉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고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들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생겨난 교육이 세계시민교육이다. 이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은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지닌 세계시민을 양성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는 세계시민교육 통해 글로벌 이슈를 학습하고 이를 통해 지구공동체 현안에 대해 책임의식을 갖게 되며, 바람직하지 않은 현실에 대해 주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실질적 참여능력을 배양한다(박수연, 2016; 월드비전, 2015). 또한 학생들이 국가라는 경계선을 뛰어넘어 지구촌의 구성원으로서 지역과 세계의 문제 및 갈등을 해결하는 데 관심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도 세계시민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이궁연, 2017). 이러한 세계시민교육은 국내에서 그 효과성을 인정받고 학교 정규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민단체나 비정부기구들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점차 확산되고 있다(김경은, 이나라, 2012; 김옥순, 신인순, 2012; 배영주, 2013). 2015년 인천에서 열린 세계교육포럼(2015 World Education Forum)에서 세계시민교육은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교육 의제 중 하나로 확정되었고, 2030년까지 달성되어야 할 공동의 목표로 정해졌다(UNESCO, 2015b). 세계교육포럼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시민’, ‘세계시민교육’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세계시민교육 실천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의 중요성이 교육현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교육현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NGO단체까지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박환보 외, 2015; 정우탁, 2015).

세계시민교육은 크게 세 가지 영역인 ‘지식과 이해’, ‘기능’, ‘가치와 태도’로 나누어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내용을 전달하도록 권고한다(UNESCO, 2015a). 그러나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많은 학교 상황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실시할 경우 지식과 이해, 기능 중심의 내용이 전달되고, 가치와 태도 영역이 소홀하게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가치와 태도 영역에서 중요시 되는 공감적 측면이 상대적으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월드비전, 2015). 또한 세계시민교육의 목표역량으로 ‘공감’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만(아태교육원, 2015) 아직까지 한국의 학교교육과 관계해서는 ‘리더십’, ‘사고력’과 같은 교육역량이 더 높게 평가되고 있다(김선정 외, 2017). 하지만

심리적, 정서적 혼란기에 있는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 지식과 기능보다는 오히려 가치와 태도적인 부분부터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세계시민교육의 핵심은 타문화를 정서적으로 수용하고 공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므로(권은주, 2014),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공감에 초점을 둔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공감은 감정이입이라고도 불리며, 다른 사람의 의도나 생각을 인지적으로 이해하고 정서상으로 동의를 일으키는 과정을 의미한다(문연심, 2004). 타인과의 친밀성을 촉진시키는 공감은 청소년기 학교생활과 관련된 중요한 변인으로 평가되고 있다(이준, 유숙경, 이윤옥, 2015). 그 이유는 학생들이 학교라는 환경 속에서 공감을 통해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하고(정미주, 2010),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타인의 관점을 수용함으로써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홍선아, 서영석, 2007). 이에 사회적으로 공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공감에 대해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공감은 초등학교 고학년의 갈등 해결 전략에 영향을 미치고(김지현, 2002), 초등학교 고학년 또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한유정, 김순혜, 2015). 또한 공감은 건강한 또래관계를 촉진시켜 긍정적인 사회관계형성을 도와주고(고영희, 2011), 집단 갈등을 해소하며 대인관계의 상호작용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촉진시키는 중요한 기제다(허희임, 2013). 즉 공감은 초등학교 고학년이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데 필요한 전인적 인성을 갖추도록 하는 필수 덕목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공감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지만 세계시민교육에 공감 증진요소를 접목하는 시도는 부족했다. 세계시민교육은 이질적인 배경을 지닌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는 태도를 가르치지만 공감의 문제까지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배영주, 2013). 또한 인지적인 측면만 강조하는 세계시민교육은 실천적 행위를 이끌어내는 공감을 불러일으키기에 무리가 있다고 본다(이윤주, 2016). 나아가 세계시민교육에서의 공감이 심도 있게 다뤄져야 하며 단순 공감에서 끝나는 교육이 아닌 행동적인 공감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박순용, 강보라, 2017).

해를 거듭할수록 사회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학교 정규 교육과정으로 채택될 만큼 세계시민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세계시민교육의 중요한 요소인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공감이라는 주제를 반드시 다룰 필요가 있다(월드비전, 2012).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공감 증진에 초점을 두고 개발한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고학년의 공감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초등학교 5학년으로 선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 시기가 자신과 타인을 동시에 바라볼 수 있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 사고 할 수 있는 상호적 조망수용이 발달하기 때문이다(Selman, 1980). 또한 아동기를 지나 청소년기로 접어드는 전환기이며 이전의 가족 중심 대인관계가 또래 중심의 더 넓은 대인관계로 확대되는 시기로서 소속감의 중요성이 커지는 때이기 때문에 그만큼 공감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는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김민선, 2007).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의 공감발달에 주안점을 둔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고안, 적용해 본 후 그 변화를 통해 효과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초등학교 고학년의 공감 수준을 향상시키고, 세계시민의식이 올바르게 형성되도록 돕는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

러한 목적을 위해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초등학교 고학년의 공감 증진에 초점을 둔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둘째, 공감 증진에 초점을 둔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고학년의 공감을 증진시키는가?

II. 이론적 배경

1. 공감과 세계시민교육

공감(empathy)은 타인의 경험 및 느낌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인지적 과정과 그때 느꼈던 정서를 마치 자신이 실제로 느꼈던 것처럼 느끼는 정서적 과정, 또한 다시 그 감정을 상대방에게 나타내는 복합적인 과정을 말한다(신경일, 1994). 또한 인간중심치료(person-centered therapy)를 개발한 Rogers(1975)는 공감을 타인의 내적 세계를 이해하고 마치 그 사람의 정서가 나의 것으로 느끼는 복합적인 과정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이는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행동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며 공감을 효과적인 상담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으로 강조하고 있다(박성희, 2004). 종합해볼 때 공감을 다차원적인 과정을 통해 구성된 복합적인 개념으로 보는 점(Davis, 1980; Hoffman, 1984),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것에 대한 반응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라 할 수 있다(Hatfield, Rapson, & Le, 2009).

공감의 구성요소는 크게 인지적 공감, 정서적 공감, 의사소통적 공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인지적 공감이란 공감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정서, 행동을 이끌어 내는 지적 기제와 작용을 나타낸다(임정, 2005). 대표적인 인지적 공감요소로는 인지적 상상하기, 역할수용, 조망 취하기 등이 있다(박지수, 2010). 둘째, 정서적 공감이란 타인의 감정을 나누는 정서적 공유를 의미한다. 주요 정서적 요소로는 '상대방의 정서에 대해 공감적 정서가 각성되는 태도'인 공감적 각성과 '타인을 향해 동정을 느끼고 관심을 갖는 태도'인 공감적 관심이다(박성희, 1997; Davis, 1980). 셋째, 의사소통적 공감은 타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감정에 대해 의사소통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타인의 내면적 세계에 대해 공감한 내용을 토대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Carkhuff, & Truax, 1967).

앞에서 제시된 구성요소들을 토대로 공감에 대한 국내연구는 다음과 같다. 한유정과 김순혜(2015)는 공감이 갈등해결전략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을 입증했고, 이경숙과 김영숙(2017)은 반응적 폭력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공감능력, 정서조절 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증명했다. 또한 공감은 청소년의 태도, 대인관계, 애착등과 함께 연구되어 왔다. 최인화와 김현미(2014)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공감이 의미 있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이옥희(2010)의 결과와 일치한다.

공감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공감 향상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어 왔다(신경일, 1994). 인지적 요소와 의사소통적 요소에 초점을 맞춘 Carkhuff와 Truax(1967)의 지시적-경험적 접근 훈련프

로그램과 Guerney(1977)의 관계증진 훈련프로그램, 인지적 요소를 중심으로 개발된 Ivey와 Authier(1978)의 미시적 상담 훈련 프로그램, 정서적 요소와 의사소통적 능력을 높일 수 있는 Egan(1976)의 대인관계 실험실 훈련프로그램이 있으며, 이 모든 연구를 통합적으로 다룬 Barrett-Lennard(1981)의 순환적 공감프로그램도 있다(고소미, 2007).

한편 2012년 UN 사무총장의 주도로 출범한 범세계적 운동인 GEFI(The 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에서는 3대 주요 교육 과제 중 한가지로 세계시민교육을 지정하였고, 세계시민으로서 역량을 강화하고 아이들이 세계적으로 상호 연관된 문제들을 해결해나가기 위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았다(GEFI, 2012). 세계시민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세계화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기 위한 세계시민의식(Global Citizenship)이 청소년들에게 강조되고 있다. Hett(1993)에 의해 정의된 세계시민의식이란 세계시민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연결된 세계관을 가지는 것, 나와 다른 세계의 다름을 인식하고 인정하며 세계에 대해 관심과 태도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는 세계시민교육은 크게 '지식과 이해', '기능', '가치와 태도' 영역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고(김향원, 2002; 한국청소년개발원, 2003; Oxfam, 2013), 추상적 이론을 전달하는 지식위주의 교육이 아닌 실질적인 참여와 실천을 중요시 하는 교육으로 변화하는 추세다(김진희, 임미은, 2014; 배지현, 2013).

2.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국내 세계시민교육은 2012년 반기문 UN사무총장의 GEFI 발족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각광을 받기 시작하여 공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엄정민, 2015). 현재 학교에서의 세계시민교육은 창의적 체험활동 및 자유학기제 등을 통해 활발히 시행되고 있고 세계시민교육 전문가 양성 및 역량강화 연수 등 학교급별 맞춤형 교육기반 조성을 위해 교육부가 나서고 있다(교육부, 유네스코 아태교육원, 2017). 이러한 교육부의 방향대로 시도 교육청(강원, 경기, 서울, 인천)이 협력해서 발간한 '2017 세계시민교육인정교과서'는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활동등과 연계되어 진행되고 있으며(김승익, 2017) 교육부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한국 국제 협력단, 다양한 한국NGO단체 등 전문기관들은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많은 이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레인보우 프로젝트, 유네스코 키즈 프로그램, 지구촌 교육 지원 사업 등 기존에 추진해오던 유네스코 사업과 함께 세계시민교육 내용을 확장했고(유네스코 한국위원회, 2015), 한국 국제 협력단은 ODA교육원을 통해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명시적인 교육목표로 제시하면서 지구촌 체험 전시관과 연계한 세계시민교육 및 체험활동을 확대하고 있다(황세영 외, 2017). 또한 한국 NGO단체들은 학교과외교육, 교원연수 등과 같은 교육 형태를 통해 자체적으로 제작한 교재를 가지고 학교와 협력하여 많은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신재은,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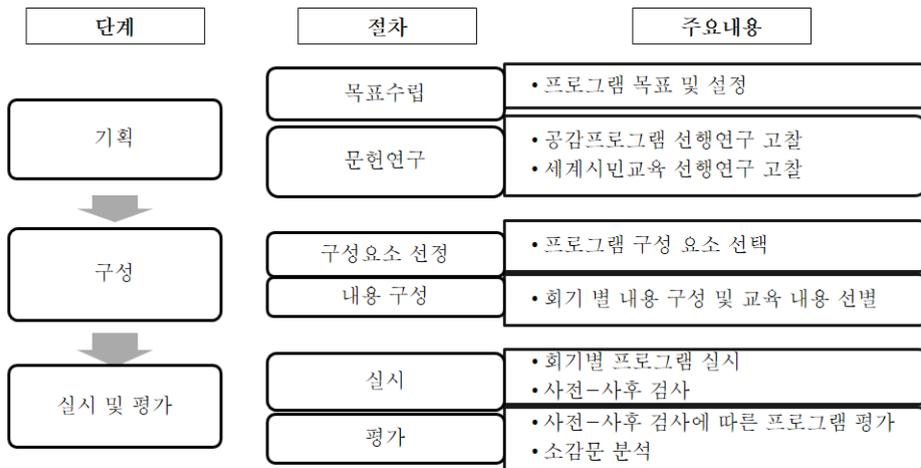
세계시민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선행연구로 강규원과 오정훈(2015)은 세계시민교육과정이 학생들의 세계시민성 함양에 기여한다고 보았다. 세계시민교육과정 이수 후 학생들의 세계시민성은

교육 전보다 높은 결과가 나왔음을 입증했다. 교육과학기술부(2009)는 2009 교육과정에서 세계 시민으로서 세계와 소통하고 배려하며 나눔의 정신으로 공동체를 위해 살아가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고 세계시민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제시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2016)은 현 교육이 국제적 흐름과 단절되어 있고 세계시민교육이 학생들에게 지구 공동체적 연대감으로 전환 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즉 세계시민교육은 세계화로 인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 목표가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추상적인 이론을 함양하기 위한 인지적 영역과 기능(기술)적 영역, 실질적 참여와 실천을 강조하는 가치 및 태도 영역을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시사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세계시민교육’의 개발을 위해 김창대 외(2011)의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모형’에 따라 프로그램을 기획, 진행 및 검증했다. 자세한 개발 절차는 아래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김창대 외(2011)의 프로그램 개발모형

2. 연구대상

W기관의 협력학교로서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에 참여를 신청한 Y학교를 선정하였고, 초등학교

교 고학년인 5학년의 6학급 중 부장교사와의 상의를 통해 무작위로 두 학급을 선정하였다. 학교 현장에서 시간과 대상에 대한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학급 단위로 나누었으며 두 집단 모두 남학생 15명, 여학생 15명, 30명씩 총 60명으로 구성하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1) 자료수집

본 프로그램은 2018년 4월 20일부터 5월 18일까지 6주 동안 매주 40분씩 6회기 프로그램으로 시행했다. 한 학급 당 30명으로 이루어진 두 학급 중 한 학급이 실험집단, 다른 학급이 통제집단이 되었으며 실험집단의 첫 회기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 두 집단 모두 공감능력 설문지를 작성했다. 프로그램은 학급이 속한 교실에서 이루어졌으며 학생 발달 단계에 맞추어진 학교수업시간과 동일하게 한 회기를 40분으로 구성하였고 각 회기가 끝날 때마다 미션을 제시했다. 이는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공감 증진을 위해 활동 할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함이었다. 6회기 프로그램이 종결된 후 실험집단은 동일한 공감능력 설문지와 소감문을 작성했으며 통제집단은 실시하지 않았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검사 도구는 홍예영과 김유숙(2015)의 ‘청소년 공감척도’이다. 3가지 하위요인(인지적, 정서적, 의사소통적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17문항이다. 측정 방식은 Likert식 6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가 1점, ‘거의 그렇지 않다’가 2점, ‘별로 그렇지 않다’가 3점, ‘조금 그렇다’가 4점, ‘거의 그렇다’가 5점, ‘항상 그렇다’가 6점)를 사용하였다. 문항 중 2번과 9번 문항은 역 채점 문항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학생들의 공감요소 높은 것을 의미한다. 검사 도구 문항은 부록에 제시했으며 공감척도의 하위척도별 신뢰도 계수는 <표 5>와 같다.

<표 5> 하위 척도별 신뢰도 검증

공감척도의 하위영역	문항수	Cronbach`s Alpha
인지적 공감	5	.779
정서적 공감	5	.742
의사소통적 공감	7	.771
전체 공감	17	.816

3) 자료 분석 방법

공감 증진에 초점을 둔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을 위해 실험집단-통제집단의 공감 점수에 대한 독립표본 t 검증 및 대응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분석

1. 공감증진에 초점을 둔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1) 기존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에서 선정된 요소

국내에서는 시민단체와 비정부기구인 UNICEF,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YMCA, GCS(Global Civic Sharing) 등에서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하고 있다. 이 중 “세계시민교육 전문과정연수 자료집”(유네스코 한국위원회, 2015)과 “교실에서 만나는 세계시민교육”(서울시교육청, 2016)을 통해 교육실적과 콘텐츠의 세분화 그리고 활동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우수성이 인정된 세 기관을 선별했다. 각 기관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W기관은 세계시민학교를 설립하여 2007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세계시민양성을 위해 힘쓰고 있고, 2017년 1-10월 기준으로 약 50만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였다(박태현, 2017). 지방교육행정기관으로서 현재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 교육을 선도하고 있는 S기관은 공교육기관들을 대표하여 세계시민교육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두고 매년 세계시민교육 계획을 발표하고 적극적으로 학생들과 교사들을 교육하고 있다(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2015). 마지막 G기관은 나눔 인성 교육의 선두주자로 세계시민교육을 활용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여러 기관들 중 학생들이 실천하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시행해 오고 있다(서울시교육청, 2016). 세 기관에서 중요한 내용으로 정해진 요소들을 종합해 볼 때 공통요소로 인성, 환경, 인권, 지속가능발전목표, 평화를 선정하였고 이에 전체적 설명인 총론을 통합하여 총 6회기 구성에 포함시켰다.

〈표 2〉 기관별 세계시민교육 비교

	W기관	S기관	G기관
목표	더불어 사는 지구마을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세계시민양성	인류의 공동 문제들을 이해 지구촌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연대감 다양한 실천적이고 협력적인 능력 향상.	지구마을 사람들에 대한 공감과 존중, 협력의 가치 세계시민으로 책임감
구성	교육과 체험 및 나눔으로 분류 초, 중, 고 각각 6차시씩 프로그램으로 구성	내용에 따라 초, 중, 고에서 적절하게 조정하여 사용 참고자료를 활용한 체험활동	초, 중, 고 대상 지역별로 상이
내용	- 세계시민이란? - 인성 - 아동인권 - 환경 - SDGs (지속가능발전목표) - 평화	세계시민성 문화 다양성과 존중 인권과 차별 없는 사회 세계화와 국제협력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노력 평화와 갈등해결	- 하나의 지구촌 - 인간의 존엄성 존중 - 아동노동문제 비위생적인 물 지속가능한 공동체 - 평화를 위한 시민 행동 역량 강화
공통 요소	인성, 환경, 인권, 지속가능발전목표, 평화		

W기관의 주요 영역들은 세계시민이란, 인성, 아동인권, 환경, 지속가능발전목표, 평화로 구성된다. 두 번째 S기관은 세계시민성을 함양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인원과 차별 없는 사회, 세계화를 통한 국제협력, 지속가능발전, 평화와 갈등해결에 초점을 두고 있다. 마지막 G기관은 하나의 지구촌으로 인식,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 아동노동, 비위생적인 물 해결, 지속가능한 공동체, 평화를 위한 시민행동 역량 강화라는 내용으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다. 이렇게 세 기관에서 중요시하는 내용을 종합하여 공통점을 도출했으며 본 프로그램에 세계시민교육의 공통요소로 반영하였다.

2) 순환적 공감프로그램에서 선정된 요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감 향상 프로그램 중에 모든 영역을 통합적으로 다룬 연구자가 Barrett-Lennard(1981)이다. Barrett-Lennard(1981)는 인지적, 정서적, 의사소통적인 흐름이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흐름이 연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순환적 공감프로그램은 Rogers(1975)의 정의에 함의되어 있는 공감의 정서적, 인지적, 의사소통적 측면이 포괄적, 종합적으로 명료하게 드러나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순환적 공감프로그램을 본 연구에 포함시켰다.

Barrett-Lennard(1981)의 순환적 공감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통해 공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제시했다. 첫 단계인 공감적 주의 집중단계는 예비단계로서 자신의 상황과 경험들을 표현하는 내담자에게 상담자가 개방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과정을 말한다(박성희, 2004). 핵심 기법으로는 ‘관심 기울이기’와 ‘적극적 경청하기’가 있다. 관심 기울이기는 타인과 대화를 나눌 때 듣는 과정에서 시선을 고정하거나 얼굴 표정 등 신체적인 표현으로 반응하는 것을 말한다. 적극적 경청하기는 상대방이 전달하는 내용들을 파악하고, 이해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행동들을 말한다. 내적인 이해가 일어나는 공감적 공명 단계는 두 번째 단계에 속한다. 이 단계에서는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반응이 함께 나타난다. 세 번째 표현된 공감단계는 앞의 과정들을 통해 내담자에 대한 이해들을 상담자가 표현하는 과정이다. 이 단계에서는 표현된 공감을 나타내기 위해 의사소통적 요소들을 많이 사용한다. 네 번째는 지각된 공감단계이다. 내담자가 상담자를 통해 받은 공감의 정도를 내면에서 인식하는 것을 뜻한다. 이때 가장 핵심내용은 피드백이다. 내담자 자신이 느꼈던 공감 받은 내용들을 상담자에게 다시 표현함으로써 새롭게 표현기술들을 습득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공감의 순환단계는 공감적 지지와 반응을 통해 이루어진 공감적 요소들이 확장되는 과정이다. 상담자가 첫 단계인 공감적 주의를 기울이는 단계로 다시 돌아가 보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공감 표현이 일어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순환적 공감프로그램의 각 단계를 엄격하게 따르지는 않지만 단계별로 사용된 주요 공감요소를 추출했다. 인지적 공감의 요소로는 적극적 경청과 관점수용(조망취하기), 정서적 공감의 요소로는 공감적 각성과 공감적 관심, 의사소통적 요소로는 공감표현과 피드백으로 구성했다.

3) 최종 프로그램

공감능력증진에 초점을 둔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은 기존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에서 선정된 요소, Barrett-Lennard(1981)의 순환적 공감프로그램에서 선택된 요소를 결합하여 총 6회기로 구성되었다. 전체 프로그램의 개요는 다음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공감능력 증진에 초점을 둔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의 개요

회기	영역	제목	주요활동	반영된 공감 요소
1	총론	세계 속 공감 여행	프로그램 목표, 공감의 정의 및 중요성 공감여행을 떠날 나라와 그 나라의 이슈 알아보기	적극적 경청
2	인성	피부색으로 달라지는 공감 색깔	경청의 자세와 긍정적인 면을 알기 - 그림 그리기 게임 주인공에 대한 감정과 느낌을 공유 나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생각해보기	적극적 경청 감정인식 및 표현
3	환경	우리는 그대의 공감이 꼭 필요합니다.	공감 받을 때와 받지 못했을 때 '물'에 관련된 문제, 피해 사례를 알아보기 모둠 토론 진행 친구의 말을 이해, 자신의 감정 표현	적극적 경청 상대방 관점수용
4	인권	나의 마음, 너의 마음	인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슈 알아보기 감정나무 만들기 공감적 관심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고 그중 한 가지를 실천하기	조망 취하기 공감적 각성, 관심
5	지속가 능발전 목표	우리의 공감이 기적으로 바뀐 시간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해 알아보기 모둠별 빙고게임 공감 표현방법을 익히고 연습하기 공감이 가장 많이 가는 세 가지 목표 선택 후 이유 발표 발표자에 대해 공감 표현하기	공감 피드백 공감 표현
6	평화	교실에서부터 시작되는 변화	세계시민으로서 달라진 모습 발견하기 칭찬쪽지 만들기 세계 이슈에 대한 공감의 중요성과 가치, 실천 방법 교실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공감 방법 정리	공감 피드백 공감 표현

※ 각 회기가 끝날 때 마다 미션 제시, 다음 회기 시작 시 미션 확인

공감의 인지적, 정서적, 의사소통적 요소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세계시민교육 하위 영역에서 추출된 '공감, 책임감, 인권존중, 다양성의 수용, 환경에 대한 관심, 지속가능한 발전, 협력' 요소들을 공감 프로그램 구성에 접목시켰다. 기존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에서 선정된 요소인 '총론, 인성, 환경, 인권, 지속가능발전목표, 평화'는 프로그램의 영역을 나누는 기준이 되었고 각 테마에서 다루는 사례들과 활동들을 통해 학생들에게 세계시민교육과 공감의 필수요소들을 전달하고자 했다. Barrett-Lennard(1981)의 순환적 공감프로그램에서는 인지적 요소인 적극적 경청

과 관점수용, 정서적 요소인 공감적 각성과 공감적 관심, 의사소통적 요소인 공감 표현과 표현에 대한 피드백을 추출하여 프로그램 구성에 첫 회기부터 마지막 회기까지 골고루 반영하였다.

본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전 예비프로그램을 구성한 후 실시하였고 학생들의 반응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현장성을 참고한 타당한 프로그램이 되도록 수정, 보완하였고 주 1회, 6주 동안 진행되는 최종 6차시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 구체적인 지도안은 <표 4>에 한 차시를 예시로 제시했다. 프로그램 개발의 전 과정은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실시 경력 8년 이상인 박사학위소지자 1인, 초등학교에서 세계시민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1인, 그리고 아동청소년상담 전공 지도교수 1인과 연구자를 포함하여 모두 4인이 지속적으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진행하였다.

<표 4> 교사용 지도안 예시(환경)

제목	우리는 그대의 공감이 꼭 필요합니다.	차시	3/6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감 받을 때와 공감 받지 못할 때의 감정을 구별 할 수 있다. • ‘물’ 로 인한 피해사례를 알고 문제에 처한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한다. 		
준비물	활동지1, 활동지2, 필기도구		
영역	단계	학습활동	
환경	도입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학습과 미션 확인 ▶ (활동지1) 감정단어알기 : 공감을 받을 때와 공감을 받지 못했을 때 감정을 체크 	
	전개 (2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 에 관련된 문제와 그로 인해 피해 받는 사례를 알아보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필리핀 바탄가스: 강수량은 풍부하나 계절에 따른 불균형이 심한 국가. 물을 수용할 기반 시설이 부족해서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② 아프리카 케냐: 오염된 식수와 비위생적 환경으로 인해 말라리아와 영양실조 등에 걸린 아이들이 고통과 죽음에 내몰리고 있다. ③ 대한민국: 강수량이 많으나 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 연평균 강수량 대부분이 여름 장마이기 때문에 빗물이 대부분 강으로 흘러가 버려 관리할 수 있는 물의 양은 적다. -자료출처: 월드비전 해외 사업장 사례, 2015; 유니세프 TV 캠페인, 2017 ▶ 문제해결을 위한 모둠토론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토론 매뉴얼을 조별로 제시한다. ② 비난하거나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는 말은 하지 않는다. ③ 토론의 목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방법들을 찾아내는 것이다. ▶ 토론의 느낌 나누기 : 친구의 말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공감 능력 높이기 	
	정리 (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시간 안내 및 미션전달 : 상대방이 공감 받지 못할 때 감정을 기억하고 공감태도 실천하기 	

4) 프로그램의 실시

프로그램 1회기는 공감 증진에 초점을 둔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와 공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는 시간이었다. 전개단계에서 공감의 정의를 학습하고 인지적 공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생들의 호기심과 궁금증을 유도했다. 대체적으로 제시된 이슈들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생생한 내용들에 대해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경청하였고, 일그러진 표정, 슬픈 표정,

안타까운 표정으로 각 이슈에 대한 충격을 표현했다. 2회기는 경청을 이해하고 인종차별에 대한 내용을 알아가는 것을 목표로 두었다.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이 중요시 되는 2회기수업에서는 경청의 자세와 중요성에 대해 학습했다. 또한 전체영상을 부분편집해서 매체자료로 활용한 두 번째 활동인 ‘피부색갈=꿀색’(Laurent Boileau, & Jung Henin, 2012) 영화를 시청했고 영화를 시청하는 내내 학생들은 다양한 표정을 지으며 눈을 떼지 못했다. 영화 관람이 끝난 후 학생들과 함께 주인공의 입장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공유했다. 3회기는 공감 받을 때와 공감 받지 못할 때에 감정을 구별하고 ‘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시간이었다. 다양한 감정을 표현 할 수 있는 단어를 알아보고 자신의 감정과 타인의 욕구까지 탐색할 수 있는 활동을 이어갔다. 학생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였을 때 혼자가 아니라라는 생각을 했으며 힘을 얻게 된다고 발표했다. 활동을 마친 후 ‘물’에 관련된 이슈들을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모둠토론을 진행했다. 이 활동은 사람들 마다 관점이 다름을 이해하고 타인의 관점을 수용 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르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학생들은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고 친구의 말을 이해하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공감 능력을 높이는 시간이었다. 4회기는 아동인권문제를 알고 사람마다의 다른 견해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아동노동에 관한 설명 후 ‘노동하는 아동들의 입장’, ‘만일 아동들이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아동들이 노동이 아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방법’이란 3가지 주제를 제시하였고 학생들은 격정과 절망의 표정을 지으며 분노와 슬픔을 표현했다. 자신의 느낌과 감정들을 공유함으로써 서로의 의견을 수용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5회기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해하고 공감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의사소통적 요소인 공감 표현에 초점을 두었다. 게임을 통해 목표들의 키워드를 배우고 공감이 가장 많이 가는 세 가지 목표를 선택한 후 그 이유에 대해 발표했다. 공감이유를 발표 할 때 본인의 생각과 느낌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서로의 의견에 대해 존중하는 마음을 갖으며, 다름에 대해 비판하지 않도록 지도했다. 6회기는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토대로 종합적인 정리가 이루어졌다. 세계시민으로서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고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금 되새겨보았다. 또한 ‘칭찬쪽지쓰기’를 진행함으로써 서로의 공감을 나누는 활동을 통해 공감표현에 대한 피드백이 이루어졌다. 6회기동안 배운 내용들을 통해 공감의 중요성과 실천 방법을 기억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다짐과 결심이 이루어졌다.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공감을 다루었다. 세계의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는 세계시민교육이란 틀에 공감위주의 내용들을 접목시켰다. 타인의 감정과 마음을 이해하고 나의 공감을 표현하는 것 등 공감적 요소를 중점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 배운 내용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수업목표를 바탕으로 구성된 과제를 매 회기마다 끝날 때 제시했고, 다음 회기를 시작할 때 과제 수행 여부에 대해 확인했다. 과제물을 수행할 때 어떠한 보상도 없었지만 수업의 전체적인 취지와 목표를 매일 알려주었고 담당 교사와의 협력을 통해 수업이 마친 후에도 과제물 수행에 대해 상기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 이로 인해 초반 1-2회기에 비해 3회기부터 과제물을 수행하는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아졌고 프로그램 내용을 이해하고 받아드리는 태도도 함께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과제활동이 프로그램 효과를 높이는 데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효과

1) 프로그램 사전, 사후 결과분석

다음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공감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사용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전체적 공감 및 공감의 하위 변인인 인지적, 정서적, 의사소통적 요소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동질집단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6〉 공감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비교

변인	실험집단		통제집단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사전_인지적 공감	3.49	.486	3.45	.545	.300	.765
사전_정서적 공감	3.41	.634	3.59	.556	-1.170	.247
사전_의사소통적 공감	3.23	.614	3.16	.609	.422	.674
사전_전체 공감	3.36	.451	3.37	.493	-.112	.911

실험집단의 공감점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실험집단의 사전, 사후 검사 간 평균점수는 유의도 $p < 0.01$ 의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위요소인 인지적, 정서적, 의사소통적 공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를 나타냈다.

〈표 7〉 실험집단 공감의 사전과 사후의 비교

변인	사전		사후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인지적 공감	3.49	.486	4.53	.329	-10.105	.000**
정서적 공감	3.23	.614	4.60	.397	-11.080	.000**
의사소통적 공감	3.41	.634	5.03	.667	-10.462	.000**
전체 공감	3.36	.451	4.76	.367	-15.210	.000**

** $p < 0.01$

통제집단의 사전, 사후 공감점수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대응표본 t-test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통제집단의 경우 전체 공감과 공감의 하위요소 모두에 있어 사전점수와 사후점수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8〉 통제집단 공감의 사전과 사후의 비교

변인	사전		사후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인지적 공감	3.45	.545	3.48	.514	-.246	.807
정서적 공감	3.16	.609	3.56	.480	.179	.859
의사소통적 공감	3.59	.556	3.13	.668	.194	.847
전체 공감	3.37	.493	3.36	.417	.086	.932

종합해보면 초기 청소년의 공감 증진에 초점을 둔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공감과 그 하위요소 모두에 있어서 유의미한 변화를 나타냈고, 통제집단은 변화가 없었음을 입증하였다.

2) 소감문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한 양적 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참여자들이 직접 작성한 소감문을 분석하였다. 이를 여러 번 반복하여 읽고 1차적으로 주제를 추출한 다음 지도교수 및 아동청소년 상담학 석사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동료들과 세계시민교육 강사들의 검증 절차를 한 번 더 거쳤다. 그 결과 5가지 주제가 추출되었다.

소감문을 통해 몇몇 학생들은 강의를 처음 접했을 때 재미가 없거나 지루했다는 표현을 했으나 회기를 거듭할수록 학생들의 성향에 따라 긍정적인 인식의 변화가 나타났다. 다양한 감정변화를 표현하고, 나아가 느낀 감정들을 행동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태도도 보여주었다. 또한 소감문을 통해서 공감적 요소뿐만 아니라 세계시민교육의 영역인 ‘지식과 이해’, ‘기능’, ‘가치와 태도’에 대한 효과도 함께 나타나면서 공감적 요소와 세계시민교육 요소가 잘 결합되어 학생들에게 전달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로써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건강한 세계시민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9〉 소감문 분석

추출된 주제	소감문 내용
세계 문제에 대한 관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가 사용하는 운동화, 핸드폰이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줄 몰랐다. 베트남과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을 빨리 도와주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일하는 아이들이 다른 나라에도 있지 않을까? 왜 이런 나쁜 모습이 없어질 수 없을까. - 물이 부족한 아프리카를 제일 먼저 도와주고 싶다. 어떻게 하면 깨끗한 물이 아프리카에 쿵쿵 쏟아지게 할 수 있을까. - 지속가능발전목표라는 말을 처음 들어 보았는데 꼭 지켜야 하는 약속으로 느껴졌다. 세상에 모든 사람이 열심히 지켜간다면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다.
공감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도 못가고 일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불쌍했다. ‘왜 저렇게 살까, 엄마아빠는 애를 왜 저렇게 내버려둘까’ 라는 생각을 했다. - 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불쌍하고 걱정이 되었다. - 우리도 저렇게 살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너무 슬프고 걱정이 되었다.

추출된 주제	소감문 내용
새롭게 알게 된 지식의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이 얼마만큼 중요하고 소중하게 다뤄야하는지에 대해 알 수 있었다. - 아동노동이라는 말에 대해서 처음 들어봤다. 일하는 아이들에 생각보다 많은 나라에 있다는 것이 충격적이었다. - 대충 알고만 있었던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돈만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돈보다 우리가 먼저 그 사람들을 친구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 그래야 진심으로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길 것 같다. - 선생님이 하는 말이 자꾸 돈을 내라고 하는 것처럼 들렸다. 불쌍한 사람들에게는 돈을 주는 게 제일 빠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은 돈 말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했다. - 나도 간급구호활동가처럼 직접 거기에 찾아서 우물도 만들어주고 학교도 만들어주고 싶다.
친구관계에 영향을 받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전에는 친구들의 말에 쉽게 빠지고 화를 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통해 친구들의 감정을 이해하게 되면서 먼저 화를 행동이 많이 줄었다. - 모둠활동을 하는 것이 싫었다. 처음에 모둠활동을 한다고 해서 너무 짜증이 났다. 왜 선생님은 이런 재미없는 것을 할까라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모둠활동을 자꾸 할수록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재미있었다. 이전 모둠활동이 좋아 질 것 같다. - 절대 먼저 사과하지 않았다. 다른 친구가 나보다 더 잘못을 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에게는 잘못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고 친구와 싸우지 않고 잘 지낼 수 있는 방법들을 알 수 있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공감 증진에 초점을 둔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고학년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절차에 따라 공감증진을 위한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실시한 후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와 관련된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시민교육의 주요 테마가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기존 세계시민교육은 자칫 학생들이 자신의 상황과 비교하면서 타인에 대해 ‘불쌍하다’는 인식으로만 고착화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강규원, 오정훈, 2015; 지은림, 신광식, 2007). 동정심을 유발하고 원조에만 힘쓰는 태도만을 중요하게 나타낼 것이 아니라 타인의 입장에서 감정을 실제적으로 이해하고, 타인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한 동기가 유발되도록 교육해야 한다(월드비전, 2015).

둘째, 세계시민교육은 공감 외에도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이 익혀야 하는 다양한 심리적 요소 중에 이타심, 배려, 존중이라는 부분도 얼마든지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UNESCO(2014)에서는 세계시민교육이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인성교육을 위한 세계시민교육에서의 ‘다양성 존중’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희 외(2015)는 세계시민교육이 존중, 배려, 협동과 같은 요소들과 긴밀한 관계가 있으며 인성 향상을 위해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세계시민교육에 심리적 요소를 더욱 부각시키고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위의 논의점을 종합해볼 때 세계시민교육은 상담영역과 결합되어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우리나라 전문 상담사에게는 많은 역할들이 요구되고 있다(임은미, 조남정, 2017). 2007년도부터 청소년상담사의 전문성 관리를 위해 보수교육이 시행되고 있는데 새로운 청소년 문제 영역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 역량을 개발하고 시대적,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지식 함양이 중요하기 때문이다(서영석 외, 2013). 또한 세계시민교육은 '보편적 가치에 대한 존중, 대인관계와 의사소통 향상, 다양한 시각을 통한 포용력, 새로운 목표에 대한 자기효능감, 확고한 자아존중감' 등과 같은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UNESCO, 2013) 현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상담 주제와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전문 상담가에게 다양한 역량을 요구하는 현대 사회에서 세계시민교육이 상담 분야와 연계하여 개발되고 발전한다면 전문 상담가의 영역이 확대되고, 전문 상담가들이 진행하는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타인을 포용하고 존중하며 다양한 문화에 대한 감수성을 학습자들이 내포할 수 있도록 하는 세계시민교육의 실천방안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Evans, Ingram, MacDonald, & Weber, 2009).

넷째 세계시민교육과 상담요소가 잘 결합될 수 있다면 향후 정규수업과정에도 세계시민교육과 연계된 상담프로그램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지금까지 또래관계, 학업상담, 자살예방, 학교폭력예방, 인터넷 중독 예방 등과 같은 상담 관련 프로그램은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이나 정규수업과정외의 시간에서 다루어졌다(김수란, 2017; 신성만 외, 2015; 심정연, 2017; 전혜숙, 전종설, 정하은, 2017; 지지은, 이숙향, 2015). 하지만 상담프로그램이 정규 교과 과정에 속해있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며 한시적으로 진행되거나 프로그램의 시수 부족으로 그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낮아지기도 했다(윤다옥, 2015; 최원현, 2016). 반면 세계시민교육의 경우 진로수업, 창의적 체험활동수업, 자유학기제에 포함되고 있으며(서울시교육청, 2017) 학급단위로 정규 수업과정에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2015) 세계시민교육이 상담과 결합된다면 정규 수업과정에서 보다 많은 시간들을 통해 학생들의 심리적, 정서적인 부분을 도울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시간들을 활용하여 상담시간과 상담실을 확보하는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소수 학생들의 부분적인 문제를 제거하는 접근보다 학급 구성원 전체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상담프로그램의 효율성 면에서도 우수하다고 하겠다.

초등학교 고학년의 공감 증진에 초점을 둔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공감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는 검사결과에 따라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동정과 원조에만 치우치던 기존 세계시민교육이 심리적 요소와 결합됨으로써 공감능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세계시민교육의 '지식, 기능, 태도' 전체 영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세계시민교육이 상담영역에서도 시너지를 거둘 수 있고 질적인 향상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다양한 분야까지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함께 추후 연구 방향에 대한 제언으로 우선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아직까지 세계시민교육은 사회, 지리, 도덕교과와 같은 교육 분야에서 주로 연구되고 있다. 세계시민교육의 가능성을 깨닫고 다양한 분야로 확장된다면 학생들에게 더 큰 효과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과분야 뿐 아니라 이 교육을 실시할 수행 인력도 더 다양화 되어야 한다. 본 연구 결과를 살펴볼 때 세계시민교육의 수행 인력으로 상담 전문가의 활용이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초기 청소년기만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므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따른 개인차를 고려한 공감 증진에 초점을 둔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기존 세계시민교육은 연령별로 세분화가 되어있지만 공감과 같은 인성 요소가 많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인지적, 정서적, 의사소통적 요소들을 더 보충하여 다양한 연령에게 맞춰진 공감 증진에 초점을 둔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6회기 구조화된 단기프로그램으로 학생들에게 공감증진의 기회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심화된 다회기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6회기 프로그램을 종결한 후 추후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효과성 지속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효과성에 대해 장기적인 추적 검사가 필요하며, 추적 검사를 기반으로 하는 후속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화 시대에 요구되는 세계시민으로 학생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앞으로 세계시민교육은 더욱 발전하고 폭넓게 사용될 것이다. 기존의 세계시민교육은 교육 분야를 통해 지식적 측면에서의 접근과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으나(이윤주, 2016) 상담적 요소를 접목시킨 본 연구를 통해 태도적 측면이 더욱 향상됨으로써 상담 분야와 세계시민교육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앞으로 세계시민교육이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어 보다 더 나은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 강규원, 오정훈(2015). 우리나라 학생들의 세계시민교육 성과. *중등교육연구*, 63(1), 1-32.
- 권은주(2014). 공감을 활용한 세계시민성 함양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고소미(2007). 게임중심 공감훈련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공감능력, 교우관계 및 갈등 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고영희(2011). 공감훈련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친사회적 행동 및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교육과학기술부(2009). 초·중등학교 교육 과정. 교육과학기술부, 제2009-41호
- 교육부, 유네스코 아태교육원(2017). 제2회 세계시민교육 국제 컨퍼런스 보도자료. 교육부.
- 김광수, 김해연(2009). 공감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공감능력과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초등교육 연구*, 22(4), 275-300.
- 김경은, 이나라(2012). 사회과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교수-학습방안: 세계적 문제에 대한 민감성 함양을 중심으로. *교과교육학 연구*, 16(1), 231-256.
- 김민선(2007).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공감이 또래수용도 및 친구관계에 미치는 영향.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선정, 주기연, 김영환(2017). '학교교육과 관계된 세계시민교육' 연구경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 207-228.
- 김수란(2017). 중학생 대상 학교 학업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한국청소년연구*, 28(3), 147-178.
- 김승익(2017). 공존과 상생을 향한 서울의 세계시민교육. 서울교육, 웹진 225권 겨울 특별기획호.
- 김지현(2002). 부모와의 애착안정성 및 청소년의 공감능력과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진희, 임미은(2014). 공정여행 수업활동에 나타난 세계시민교육의 의미 탐색. *한국교육*, 41(3), 213-239.
- 김창대 외4(2011). 상담 및 심리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학지사.
- 류승민(2010).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이 아동의 공감능력 및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연심(2004). 부모-자녀관계 유형이 유아의 공감과 조망수용 및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24(1), 115-143.
- 박성희(1997). 공감과 친사회행동. 문음사.
- 박성희(2004). 공감학. 학지사.
- 박수연(2016). 서울시교육청 2016년 세계시민교육정책 제언. 서울특별시교육청.
- 박순용, 강보라(2017).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들의 현장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국제이해교육연구*, 12, 49-88.
- 박지수(2010). 초등학교 5학년 아동의 공감능력과 교우관계 및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태현(2017). 2017 교육기부대상교육기부인증제 우수사례집. 한국과학창의재단.
- 배영주(2013). 세계시민의 역할 과제를 중심으로 한 세계시민교육의 재구상. *교육과학연구*, 44(2), 145-167.
- 배지현(2013). 유아세계시민교육을 위한 ‘글로벌 친구 만들기 프로젝트’적용에 관한 실행 연구. *다문화교육연구*, 6, 59-81.
- 서영석 외(2013).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개선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서울시교육청(2016). 교실에서 만나는 세계시민교육. 서울시교육청.
- 서울시교육청(2017). 2017 세계시민교육 기본계획안. 서울시교육청.
- 신경일(1994). 상담자 교육을 위한 공감훈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성만 외(2015). 인터넷 중독 청소년을 위한 동기강화상담 집단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상담학 연구*, 16(4), 89-109.
- 신인순, 김옥순(2012). 청소년 국제교류활동의 세계시민의식 형성효과. *인문사회과학연구*, 37, 5-36.
- 신재은(2017). 한국NGO의 글로벌시민교육 현황 및 사례. 한국국제협력단.
- 심정연(2017). Wee 클래스 효과 분석: 서울특별시 중학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월드비전(2015). 월드비전 세계시민교육의 효과성 연구. 한국월드비전.
- 엄정민(2015). 세계시민교육(GCED)의 교육적 의미.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 아태교육원(2015). 세계시민교육공모전 참고자료. 아태교육원 홈페이지 내 2015 세계시민교육 공모전 pdf자료 <http://apceiu.tistory.com/attachment/cfile24.uf@2110D24A550663C831160F.pdf> 에서 2019년8월18일 인출
-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2015). 유네스코가 권장하는 세계시민교육 교수학습 길라잡이.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2015). 2015 세계시민교육 전문과정연수 자료집. 서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유네스코세계시민학교.
- 윤다옥(2015). 학교상담의 실제: 학교상담자의 어려움과 소진, 더 행복해지기. *상담과지도*, 50, 175-184.
- 윤보나, 유형근, 권순영(2009). 초등학교 고학년을 위한 공감 중심 집단 따돌림 예방프로그램 개발. *아동교육*, 18(4), 171-183.
- 이경숙, 김영숙(2017).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의 공감능력과 정서조절 능력이 반응적 폭력행동에 미치는 영향.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7(8), 439-451.
- 이궁연(2017). 한국 공교육 내 세계시민교육 정책과 실행. *국제개발협력*, (3), 39-62.
- 이성희 외(2015). 세계시민교육의 실태와 실천과제. 한국교육개발원.
- 이옥희(2010). 초등학교 학생의 공감능력과 사회적 능력이 학교생활적응 및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윤주(2016). 세계시민성 함양과 세계시민교육의 실천방안. *사회과학연구*, 27(1), 225-245.
- 이은희, 이효자(2014). 공감기반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공감능력 및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 *상담심리교육연구*, 1, 25-48.
- 이준, 유숙경, 이윤옥(2015). 초· 중학생의 [학교생활 공감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학습자중심교과*

- 교육연구, 15, 775-797.
- 이태주, 김다원(2010). 지리교육에서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개발교육의 방향연구. 대한 지리학회지, 45(2), 293- 317.
- 임은미, 조남정(2017). 전문상담교사, 학교행정가, 상담교수 간 전문상담교사 직무에 대한 인식의 차이. 한국교원교육연구, 34(1), 75-102.
- 전혜숙, 전종철, 정하은(2017). 청소년 자살예방 프로그램 효과성에 관한 메타분석.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5(3), 92-121.
- 정미주 (2010). 초등학교 아동의 공감하기, 친사회적 행동 및 또래관계 간의 관계.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우탁(2015). 유네스코는 어떠한 교육을 추구하는가? 모두를 위한 국제이해교육. 서울: 살림터. 36-57.
- 지은림, 신광식(2007). 세계시민의식 구성요인 탐색 및 관련 변인 분석. 시민교육연구, 39(4), 115-134.
- 지지은, 이숙향(2015). 갈등해결중심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이 초등 통합학급 학생들의 갈등해결 전략 사용과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 및 장애학생 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 지적장애연구, 17(1), 319-348.
- 최원현(2016). 학교상담 전략 및 사례연구. 상담과지도, 51, 181-193.
- 최인화, 김현미(2014). 초등학교의 공감능력, 부모애착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동서정신과학, 17(1), 113-126.
- 한유정, 김순혜(2015). 초기 청소년의 공감과 친구관계에서 갈등해결전략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2(12), 471-491.
- 황세영, 최정원, 문지혜, 최윤(2017).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허희임(2013). 공감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선아, 서영석(2007). 공감훈련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아동의 분노수준, 분노표현 및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미래교육학연구, 20, 61-82.
- 홍예영, 김유숙(2015). 청소년 공감 척도 개발과 타당화 연구. 청소년학연구, 22(8), 159-183.
- Apple, M., Kenway, J., & Singh, M.(2005). *Globalizing education: Policies, pedagogies and politics*. New York: Peter Lang.
- Barrett-Lennard, G. T.(1981). The empathy cycle: Refinement of a nuclear concep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2), 91.
- Davis, M. H.(1980).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individual difference in empathy. *JSAS Catalog of Selected Document in Psychology*, 0, 85.
- Egan, G.(1976). *Interpersonal living: A skills-contract approach to human-relations training in groups*. Brooks Cole.
- Evans, M., Ingram, L. A., MacDonald, A., & Weber, N.(2009). Mapping the “global dimension” of citizenship education in Canada: The complex interplay of theory, practice and context.

Citizenship Teaching and Learning, 5(2), 17-34.

Guernsey, B. G.(1977). *Relationship enhancement*. Jossey-Bass.

Hatfield, E., Rapson, R. L., Le, Y. C. L., Decety, J., & Ickes, W.(2009). The social neuroscience of empathy. *Emotional Contagion and Empathy*, MIT Press, Boston, MA, 19-30.

Hett, E. J.(1993). *The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to measure global-mindednes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San Diego).

Hoffman, M. L.(1984). Interaction of affect and cognition in empathy. *Emotions, cognition, and behavior*, 103-131.

Initiative, G. E. F.(2012). 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 The UN Secretary-General's Global Initiative on Education. UNESCO <http://www.unesco.org/new/en/education/globaleducation-first-initiative-gefi/> accessed January, 30, 2014.

Ivey, A. E., & Authier, J. (1978). *Microcounseling: Innovations in interviewing, counseling, psychotherapy, and psychoeducation*. Oxford, England: Charles C Thomas.

Noddings, N. (Ed.).(2005). *Educating citizens for global awareness*. Teachers College Press.

Oxfam, G. B.(2006). *Education for global citizenship: a guide for schools*. UK: Oxfam.

Oxfam(2015). *Education for global citizenship: A guide for schools*. UK: Oxfam.

Selman, R. L. (1980). *Growth of interpersonal understanding*. Academic Press.

Truax, C. B., & Carkhuff, R. R.(1967). Modern applications in psychology. Toward effective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Training and practice*. Hawthorne, NY, US: Aldine Publishing Co.

UNESCO(2013). *Outcome document of the Technical Consultation o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Paris: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UNESCO(2014). *Basic Texts: Of the 2003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Unesco.

UNESCO(2015a).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Topics and learning objectives*. France: Paris.

UNESCO(2015b). *Draft Incheon Declaration*. Incheon: UNESCO.

Abstract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Effects of the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Program Focusing on Improving Empathic Ability of Higher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Sang In Cho, Hee Boon Bae(Sangmyung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program focused on empathy enhancement, apply it to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Higher Grade, and reveal whether it has an effect on empathic ability improvement. A program development model was established for program development and along with literary review and common elements were drawn from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programs that had previously been developed and applied to construct the final program. The developed program was applied to 60 fifth grade students and For effectiveness verification, pre and post tests were conducted on both the test group and control group. As a result, the test group participating in the program displayed more improvement in cognitive, emotional, and communicative empathy than the group before participating the program but the control group showed no change. Therefore, it was empirically shown that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programs focusing on empathy enhancement do help to enhance the empathy of higher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that they overcome the limitations of previous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that simply provokes sympathy or only focuses on material support. Also, by combining counseling elements with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it implied synergy effects with counseling domains.

[Keywords] Empathy, Global citizenship,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Program development